

「2008년도(제12차) 중앙회 정기총회」 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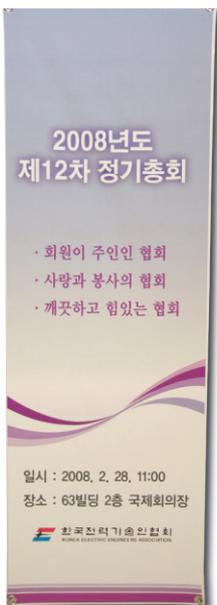
▲ 정기총회 회의장 전경

전력기술인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진력하고 있는 한국전력기술인협회(회장 이희평)는 2008년도 정기총회를 2월 28일(목)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별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였다. 이 날 총회에서는 2007년도 사업 및 예산을 결산하고 회원의 권익보호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2008년도 사업과 예산을 확정하였다.

대의원을 포함한 총 3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정기총회는 산업자원부 고정식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과 한국전력공사 권오형 전무이사, 전기안전공사 박근식 기술사업이사,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원일식 이사장, 전력전자학회 최규하 회장이 귀빈으로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희평 회장은 개회사에서 경제발전의 근간인 전력산업의 눈부신 발전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소임을 다하고 있는 100만 전력기술인들을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협회를 신뢰하고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제산업발전과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기의 중요성과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이러한 전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국민의 안전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임을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정식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은 치사에서 전기공급 설비를 차질 없이 관리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산업발전에 기여해 온 전력기술인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





❶ 귀빈들이 VIP실에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
 ❷ 대의원들의 국민의례 모습
 ❸ 산자부 고정식 에너지지원정책본부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들 입장

해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만큼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무로 안타깝게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이윤성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는 바로 국력이고 이러한 전기를 다루는 전력기술인은 국가의 인재인 만큼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욱 기술을 갈고 닦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진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전력공사 권오형 경영관리본부장은 축사에서 오늘날의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음지에서 불철주야 수고하고 있는 전력기술인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시대에 우리나라가 세계 1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자기계발을 통한 경쟁력 향상에 주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그 동안 전력기술인들의 권익향상과 업계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전력기술인들에 대한 수상이 있었는데,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찬복 법정검사팀장 등 14명이 산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서울특별시장 표창에는 (주)진전기엔지니어링 정순봉 대표이사 등 13명이, 협회장 표창은 발안마을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박정환 관리소장 등 14명이 수상의 영예를 누렸다. 21개 지회 중 최우수 지회는 부산지회가, 우수지회는 서울남동지회가 선정되었다.

